

<2021 올PASS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전임상담원·자립지원전임상담원)>

개정2판2쇄(발행일 2021.05.20.)

개정 법령 추록(2021.7.1. 법령기준)

안녕하십니까, 시대고시기획입니다.

<2021 올PASS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전임상담원·자립지원전임상담원)> 개정2판 2쇄 도서 출간 이후 개정된 법령 및 변경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제8편 고용보험법령

321p

(2) 용어의 정의(제2조)

① 피보험자

㉟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322p

(6) 보험료(법 제6조)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7) 고용보험위원회(법 제7조)

①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보험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운용 결과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23p

(9) 보험관계의 성립·소멸(법 제9조)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24p

2 피보험자의 관리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일(법 제13조)

①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일(법 제14조)

① 피보험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325p

(3)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법 제15조)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의 하수급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2p

(11) 비용 지원의 기준 등(법 제28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월별보험료를 모두 더한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또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6p

2 구직급여

(1) 구직급여의 지급 요건(법 제40조)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2) 피보험 단위기간(법 제41조)

①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②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9p

(6)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과 구직급여일액(법 제45조 및 법 제46조)

③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8p

(3) 기초일액(법 제69조의4)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에 대한 기초일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349p

(8) 준용(법 제69조의9)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2조 제1항·제43조 제3항 중 “이직”은 “폐업”으로 보고, 제43조 제1항 중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는 “제69조의3”으로 보며, 제63조 제1항 중 “제46조”는 “제69조의5”로 보고, 제48조 제1항 중 “제50조 제1항”은 “제69조의6”으로 본다.

351p

(5) 준용(법 제74조)

①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고,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본다.

353p

(9)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법 제76조의2)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0) 준용(법 제77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본다.

■ 6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1)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법 제77조의2 및 시행령 제104조의5)

② 예술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 예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 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⑤ 예술인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⑥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 그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4p

(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법 제77조의3 및 시행령 제104조의8)

①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한다)
 -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③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예술인의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355p

(3)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법 제77조의4)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 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및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4) 준용(법 제77조의5)

①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된 날”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로, “고용된 근로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개시된 예술인”으로 본다.

②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 제2항 제1호, 제41조 제2항,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 제2항 제1호 중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전 24개월”로, 제63조 제1항 본문 중 “제46조”는 “제77조의3 제4항·제5항”으로,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47조, 제49조”는 “제47조”로 본다.

③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하고, 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는 “제5장의2에 따른 구직급여”로, “제5장”은 “제5장의2”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출산전후급여 등”으로, “사업주”는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사업장”은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본다.

7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1)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법 제77조의6)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 적용한다.

② 노무제공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③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④ 적용하는 노무제공자와 그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 그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법 제77조의8)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최종 이직 당시 단기에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한다)
 -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

②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④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노무제공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노무제공자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⑧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법 제77조의9)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또는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64p

(2) 준용(법 제106조)

이 법에 따른 다음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4) 보고 등(법 제108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게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68p

(3) 과태료(법 제118조)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편 단원별 예상문제

370p

03 다음 중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③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④ 적용 제외 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04 다음 중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④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해설

- ①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참조).

371p

05 문제 해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및 상실일(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4조 참조)

취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경우 : 그 고용된 날(①) •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 그 적용을 받게 된 날(②)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상실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④) •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 이직한 날의 다음 날 •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날의 다음 날(③)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73p

11 다음 중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③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50일 이상일 것
- ④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해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③)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②)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④)
 -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374p

13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산정방법으로 틀린 것은?

- ①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②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③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 ④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